

본 회

## 협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 건의에

# ✓ 건교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공사 적정 활용 협조 요청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9월 1일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에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건교부가 최근 실적공사비 단가적용 관련 협조요청을 각 시도 단체장 및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특히 이 공문에서 정부고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법에도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등은 발주기관장이 실적단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음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발주기관들이 더욱 확대되고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되지 않는 공사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2회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를 공고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 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설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올 8월 현재 실적공사비 적용가능 공종의 5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적용단가는 작업조건이 양호한 중대형 공공건설공사 위주의 최저가낙찰공사가 포함된 계약단가에서 산출된 단가로 소규모 공사 및 전문공사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어 설비건설업체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설비건설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경쟁력 약화, 부실시공 등 부작용 초래가 우려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자부에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적정한 실적공사비단가 조사 시스템을 확보하여 줄 것과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등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적정한 실적공사비단가 조사 시스템 확보

**건의내용** ① 최저가낙찰공사를 실적단가 축적대상에서 제외

② 적정한 실적단가를 확보할 수 있는 단가조사 시스템 마련

**이유** ① 최저가낙찰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실적단가 하락이 확대될 것이다.

현 계약제도에서는 낙찰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적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 실적단가 평균 낙찰률 : '06 상반기 81.8%, '06

본 회

하반기 78.8%

② 건축공사비지수는 2.7% 상승하였으나 기계설비 실적공사비단가는 2.4% 상승으로 실적단가의 실질 상승률은 하락(-0.3%)했다.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자료

건축공사비지수 : '05. 12월 126.7, '06. 5월 130.2 로 2.7% 상승

기계설비 실적단가 : '06년 상반기 대비 2.4% 상승

③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예정가격으로 낙찰 계약된 단가가 절대적인 실적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

(품셈 20~30%, 자재단가 10~35% 낮게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가격)

\* 다양한 공공기관의 계약단가 조사 및 실적단가 축적 필요

□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등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에서 제외

건의내용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사금액을 명시하고,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이유 ① 실적공사비 단가는 작업조건이 양호한 중대형공사의 계약단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단가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및 전문공사까지 적용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심화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②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에 있어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이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소규모공사까지 적용하고 있다.



135-951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7층 / 전화 : 6240-1141,3 / 전송 : 6240-1114

<http://www.kmcca.or.kr>

문서번호 설비협기술2006-255호

시행일자 2006. 9. 1.

받 음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참 조

제 목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건의

선	지		
결	시		
접	일		
수	자		
	시간		
	번호		
처	결		
리	재		
과	공		
담	람		
당			
자			

1. 국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04년부터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제도를 시행하여 표준품셈 방식과 병용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을 50%로 확대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실적공사비 적용단가는 중대형 공공건설공사 위주의 최저가 낙찰공사가 포함된 계약단가에서 산출된 단가로 소규모공사 및 전문공사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전문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경쟁력 약화,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어 불임과 같이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 건의 1부. 끝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 중 학



본 회

“우리 국토 아름답게- 우리 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실적공사비 단가적용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하여 ‘04년부터 매년 2회씩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를 공고하여 곡곡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설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가격 작성시 중소기업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사부실이 우려되고, 공사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공사를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06년도 하반기에 공고한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1-3 적용방법 (1)항에서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은 발주기관장이 실적단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는 공사규모, 현장조건, 계약수량, 이행기간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건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공사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시설과장),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울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제주지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조달청장,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국농촌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SH공사 사장

전결  
09/20

주무관 박경원 건축사무원 김연미 탐장 김익서 기획관 옥영방

협조자

시행 건설환경팀-1636 (2006. 09. 20.) 접수 ( )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http://www.moct.go.kr

전화 02-2110-8787 전송 02-504-4076 / parkw55@moct.go.kr / 공개

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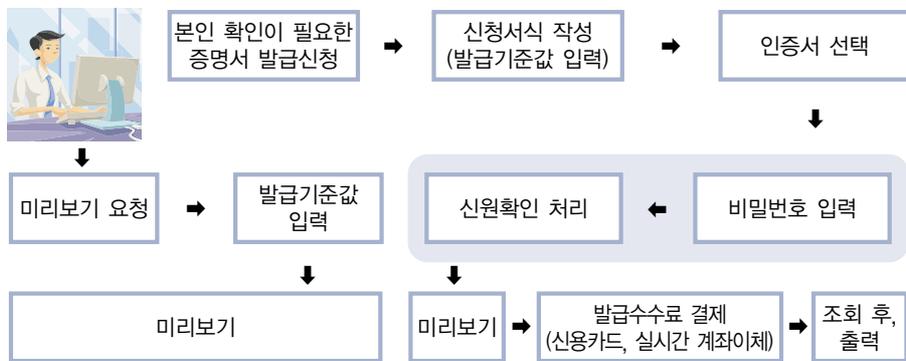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협회 방문 없이 편리하고 빠른 인터넷증명발급 시스템을 지난 9월 16일부터 발급함에 따라 회원사들이 회사에서 인터넷 증명발급을 받으면서 협회에 각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회원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게재한다. 이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클릭하여 자주묻는 질문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인터넷 발급증명서 종류〉

- 건설공사 실적신고서(총괄표, 실적내역)
- 시공능력평가 종합확인서
-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 설비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시공능력 순위확인서(자동제어공사 전문분야)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확인서
-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자동제어공사 전문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전문분야 기성실적 신고서
-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

## 〈대한설비건설협회 인터넷증명서 발급 절차〉



본 회

1. 발급지원 프린트란?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의 발급은 증명서의 안전성,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복사방지코드, 이차원바코드, 프린터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린터 보안성 심사를 통과한 프린터에 한해서 증명서의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발급지원 프린터임에도 출력이 안될 경우?

**원인** 공유프린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프린터 모델이 발급지원 프린터 목록에 존재해도 보안상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환경에서는 출력 시점에 출력 데이터가 PC(프린터에 연결된)로 전송(스풀)되어 버리기 때문에 출력에 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결** 프린터와 컴퓨터가 로컬(직접) 혹은 네트워크(네트워크 카드 사용)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발급지원프린터 모델인데 지원불가로 나타날 경우?

**원인** 프린터의 모델은 지원 가능한 프린터이나 지원 불가로 나오는 경우는 드라이버 정보가 틀린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린터 제조사가 제공한 정식 드라이버와 PC에 설치된 드라이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출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프린터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신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시고, 출력을 재시도 하시기 바랍니다.(window에서 제공하는 공용 드라이버의 경우에 실제 프린터 모델을 확인할 수 없음.

지원 불가)

4. 증명서 조회/출력 창에서 출력을 시도, 그러나 출력이 되지 않고, PC가 멈추는 현상 발생시

**원인**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인 “Virus Chaser”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프로그램 간의 충돌로 상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Virus Chaser” 기능 중에 실시간 시스템 감시를 끄기로 설정해 놓고 출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5. 증명서 출력 중에 “Secure Print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러 발생시

**원인**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위한 클라이언트 모듈(BCQRE Secure Print)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해결** 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BCQRE Secure Print” 프로그램 제거

② WinNT 경우 : C:\WINNT\system32\drivers 폴더의 “AFPAnsi.sys” 파일 삭제

WinXP 경우 : C:\WINDOWS\system32\drivers 폴더의 “AFPAnsi.sys” 파일 삭제

Win9x 계열 : C:\WINDOWS\system 폴더의 “AFPAnsi.vxd” 파일 삭제

③ PC 재부팅

④ 증명서 출력을 위한 웹 사이트 접속 및 출력 재시도 : 컴퓨터 재부팅 메시지에 따라서 컴퓨터 재부팅 수행

본 회

6. 지원가능 프린터이고 프린터 선택 창에도 보 이는데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원인** 사용자의 프린터 설치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제어판의 프린터를 열어보면 ML-xxxx(1), ML-xxxx(2) 등등 동일 프린터가 여러개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신 후에 출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프린터 제조사에 연락하시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프린터 선택창에서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인** 프린터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해결** 프린터 제조사가 제공한 프린터 드라이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신 후에 출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8. 프린터 선택창에서 내 컴퓨터에 달려있는 프린터 이름이 아니고 네트워크 상에 프린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원인** 프린터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해결** 프린터 제조사가 제공한 프린터 드라이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신 후에 출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9. 증명서 출력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원인** LPT1 포트를 사용하는 프린터의 경우에, USB1.0, USB2.0, 네트워크 카드(내부 네트워크의 속도)를 사용하는 프린터와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해결** 사용자의 프린터가 USB 포트를 지원하는 경우에 LPT1의 포트가 아닌 USB 포트를 사용하시면 출력속도에 상당한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 증명서 출력 시에 “3005”번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 프린터와 PC의 연결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결** “시작 → 설정 → 프린터 및 팩스”로 이동해서 인쇄할 프린터의 속성(등록정보)으로 가서 시험인쇄(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통해 프린터의 정상출력 여부 확인인쇄가 안되면 해당 제조사 AS센터에 프린터 상태 점검을 요청합니다.

프린터와 Internet Explorer를 끄고 새로 시작한 후에도 안되면 운영체제와 프린터를 끄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직접 연결된 프린터일 경우 다른 PC 및 프린터 교체 후 인쇄를 시도합니다. 

대전 · 충남도회

## 2006년 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전** · 충남도회(회장 성열구)는 지난 9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3학년 최인성 외 5명의 학생에게 2006년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열구 회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생들에게 “꿈을 위해 열정을 바치는 젊음은 아름답다”고 말한 뒤 “학업에 정진하여 앞으로 미래 설비건설업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 충남도회는 산학협약을 체결한 한밭대학교(건축설비공학과), 우송공업대학(인텔리전트설비계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산업설비과)에

장학금 및 기능인력양성 기금으로 매년 1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 · 충남도회가 지급한 2006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하반기 장학금 수혜자 명단

성명	학교명	학과	학년
최인성	한밭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3
송주희	한밭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2
정구현	우송공업대학	인텔리전트설비계열	1
남기준	"	"	1
윤정현	"	"	1
국동진	"	"	1

경기도회

# 중국 안휘성안장협회 방문,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경기도회**(회장 김영완) 김영완 회장 외 21명의 대표단이 지난 10월 20일 중국 안휘성안장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켰다.

중국 안휘성안장협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완 회장 외 21명의 경기도회 대표단과 왕승잠 회장의 22명의 안휘성안장협회 대표단은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양국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키로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도회는 경기도내 설비건설업계 현황 및 최근 국내 설비건설업계 동향을 소개했고 중국 안휘성안장협회도 안휘성 내 건설규모를 소개했다.

중국 안휘성안장협회는 안휘성의 건축에 대해 기

업규모와 시공능력에 따라 3개 등급(청부기업, 전문분포기업, 건축노동기업)으로 분류되며 안휘성 내에는 총 3101개 기업이 있다. 그 중 청부기업(일반건설업)이 1,162개, 전문분포기업(전문건설업)이 1438개, 건축노동기업이 501개로 분포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05년 기준 안휘성 건설업은 안휘성 내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5%의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지난 2003년 중국안휘성안장협회를 방문, 양국 협회가 상호교류를 통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5년 경기도회 초청으로 중국안휘성안장협회 대표단이 경기도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충북도회

## 제2회 회원사 추계등반대회 개최



**충북** 도회(회장 장순경)는 회원사들의 결속력강화와 체력단련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가족 및 설계사무소와 자재회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명산에서 제2회 회원사 추계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대자연과 함께 호연지기를 기르고 회원사의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등반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과 함께 10명을 추첨하여 고급 등산용품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도 마련됐다.

장순경회장은 “충북지역 설비건설인들이 모처럼 대자연을 접해 내고장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체력 증진과 함께 회원사들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힘찬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결속이 한층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행사를 매년 마련해 회원사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충북도회

## 제7회 충북 가스인의날 개최



**한국**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원용준)가 주관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 ‘제7회 충북 가스인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 24일 충북 청주시 쌍수공원에서 충북지역 가스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 국민의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충북지역 가스산업인의 가스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원용준 충북지역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량 및 노후된 가스시설의 개선, 퓨즈콕 등 안전기기 무료보급, 안전공급계약 및 유통구조 개선이나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등은 정부의 추진의지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 후 “충북지역이 사고없는 해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같이 꼼꼼한 점검과 안전사

충북도회

용 계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이재충 정무부지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가스안전사고 발생으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북의 가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산업인들이 충북 도민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할 때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은 물론 충북지역 가스안전관리가 한층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북지역 가스산업인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진력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가스안전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가스안전관리에 기여한 우수 가스산업체 및 종사자, 공직자 등 총 20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수여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 및 충북도회장 감사패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 및 충북도회장 감사패 수여자 명단

훈 격	성 명	소 속	직 위
충청북도지사 표창	오탈종	영광기업(주)	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이은식	정보건설(주)	대표이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공로패	신현호	(주)신용에너지	대표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장 감사패	안창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부장